

타락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므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타락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신대로의 모습인 자기의 생을 위하게 된 것이다. 《부교수·신학박사》

## 참 고 문 헌

1. Dilthey, W.,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M. Riedel (ed.) Frankfurt a/M, 1970.
2. \_\_\_\_\_ "Ideen über beschreibende und zergliedernde Psychologie" in: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V*, Göttingen, 1982.
3. Gehlen, A., *Moral und Hypermoral*, Frankfurt a/M, 1973. M
4. Habermas, J.,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M, 1977.
5. Pannenberg, W., *Grundfragen Systematischer Theologie*, Göttingen 1971.
6. Scheler, M., "Mensch und Geschichte" in: M. Scheler, *Späte Schriften*, München, 1976.
7. \_\_\_\_\_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in: M. Scheler, *Späte Schriften*, München, 1976.
8. Szilasi, W.,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Tübingen, 1959.
9. Thies, E. (ed.), *Ludwig Feuerbach Werk in Sechs Bände III*, Frankfurt a/M, 1977.
10. 이보민, "역사의 내재성과 초월성", *고신대교수논문집 12집*, 1984.
11. \_\_\_\_\_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고신대이데올로기비판서 3집*, 1984.

## 조직신학은 실천적인가, 이론적인가?

고 재 수

본고에서는 편의상 신학을 다섯분야 즉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론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누고 있다. 조직신학 또는 교의학<sup>1)</sup> 과목은 윤리학과 같이 이론신학 분야에 속한다.

사실 이론신학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 과목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교의학이 조직적 신학(systematical theology) 또는 교의적 신학(dogmatological theology)<sup>2)</sup> 혹은 역사적 신학(historical theology)<sup>3)</sup>에 속하기도 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이론신학이란 용어속에 속한 일은 없다. 다만 G. Ch. Storr라는 신학자는 이론이란 말을 조직신학에 사용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 교리의 이론적 부분」이란 제목으로 조직신학 책을 썼다.<sup>4)</sup> 조직신학 과목을 이론신학이라 부를 때 이 과목의 특징이 이론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 표현이 옳은 것일까? 단순히 표현의 문제를 두고 볼 때에는 이 문제가 그

1. 이 과목의 명칭에 대해서 필자는 교의학이란 명칭을 좋아하지만 본고에서는 조직신학이란 명칭을 편의에 따라 사용한다.

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에 대한 신학적 역사를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II

오래 전부터 신학이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신교 전통 상의 한 예를 들겠다. 1625년에 네 명의 교수들이 「순수신학개요」(Synopsis Purioris Theologiae)라는 조직신학 책을 출판했다. 그 교수들 중의 한 사람인 폴리안더(J. Polyander)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후자는 신학이 이론적인 것이라 하고, 후자는 신학이 실천적인 것이라고 하며, 후자는 두가지 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신학이 이론적인 동시에 실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후자의 대답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동의한다.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의 두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며, 둘째는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볼 때 경건이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는 것처럼, 지식은 경건에 종속되기 때문이다.”(참고, 딤편 4:8, 골 3:16, 딤편 1:1)<sup>2</sup>

이상의 입장을 좀 더 설명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신학이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직신학과 윤리학을 포함한다.<sup>3</sup> 여기서 그 신학의 두가지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의 두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직신학부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2. A.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2nd ed., Kampen: Kok, 1909) III § 45, 346ff.
3. G. Ch. Storr, *Doctrinae Christianae Pars Theoretica e S. Literis repetita* (1793), 참고J. Köstlin, *Dogmatik*, in A. Hauck (ed.) *Realencyklopä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 IV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898) 736.
4. H. Bavinck (ed.), *Synopsis Purioris Theologiae* (5th ed., Lugduni Bataavorum: Apud Didericum Donner, 1881) 5.

에 대한 부분은 윤리학 부분이라는 것이다. (기도의 주제도 윤리학 안에서 다루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조직신학적 부분은 이론적으로 여겨졌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포함하는 윤리학 부분은 실천적으로 여겨졌다. 또한 인식을 위한 조직신학은 경건을 위한 윤리학을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Synopsis의 입장은 Th. Aquinas의 사상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퀴나스는 ‘성교리는 실천적 학문이나’는 문제를 그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성교리는 실천적이기보다 사색적이라고 답한다. 그 이유는 성교리가 인간적 행함보다 신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적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향한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sup>4</sup>

이같은 견해를 Synopsis의 견해와 비교해 볼 때 이는 것과 행함 사이의 구분은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론적 또는 사색적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함과 반대말로 보았다. 아퀴나스와 Synopsis의 차이는 강조에 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보조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에 Synopsis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한다고 본다.

아퀴나스처럼 아는 것을 행함보다 앞세우는 사상은, 지식을 과다 평가하는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지식은 가장 중요한 인간적 능력이라 생각하므로 아퀴나스는 사람의 지식에 속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그를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Synopsis에서는 지식이 경건에 종속적이라 봄으로써 이같은 헬라 철

5. A.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2nd ed., Kampen: Kok, 1909) III, 346.
6. Th. Aquinas, *Summa Theologica* I, I, 4 (ed. altera Romana, Romae: Ex typographia Forzani et S., 1894) 18.

학적 영향을 회피했다. 그 결과로서 Synopsis의 사상은 아퀴나스의 사상보다 나은 것이다.

하지만 Synopsis에도 한가지 오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라는 생각은 헬라철학에 합치되는 생각이지만 성경은 이와 완전히 다르게 말한다. 호 4 : 1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땅에는 진 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 말한다. (참고 4 : 6, 6 : 6)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sup>7)</sup>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머리 속에 있었을 뿐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그 지식의 역할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보다 더 넓은 것이다. 사실 지식이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주장은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골 1 : 9~10에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머리의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의 지식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기독교 생활에 속하는 것이다. (참고 벰후 1 : 2 이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부분이다. 예수님은 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

7. C. van Gelderen, W. H. Gispen, *Het Boek Hosea*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 KOK, 1953) 83, 217; H. W. Wolff, *Dodekapropheten I Hosea*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 : Neukirchener Verlag, 1961) 84.

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 : 37) 여기서 뜻이란 헬라어로 *διανοια* 인데 이말은 생각하는 기능, 지성, 이해' 를 의미한다.<sup>8)</sup>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에 속하며 믿음의 활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실행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조직신학이 단지 이론적이기만 하고 실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Synopsis가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는 의미처럼 조직신학을 실천과 구분하여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란 상호 반대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림프(C. Trimp) 교수는 이점에 대해 “모든 신지식은 ‘실천적’ 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향한다. 이 사실을 신학과목을 이론적 과목과 실천적 과목으로 나누는 일을 전혀 무용하게 한다.”<sup>9)</sup> 조직신학 과목도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공부하는 이상이 아니다.

### III

다른 의미에서 조직신학을 이론적이라 부를 수 있다. 이론이란 말의 현대적 정의는 ‘일단의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으로 제시된 사상의 체계’<sup>10)</sup> 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신학이라 한다면 이론이란 조직신학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조직신학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이론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삼위일체와

8. H. G. Liddell,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rev. ed. with Supplement; Oxford : Clarendon Press, 1976) s. v. *διανοια*. 405; F. W. Grosheide, *Hei Heilig Evangelie volgens Mattheus* (Commentaar op het Nieuwe Testament, 2nd. ed., Kampen : Kok, 1954) 338.

9. C. Trimp, *Inleiding in de Ambetelijke Vakken* (Kampen : Copieerinstelling v. d. Berg, 1978) 10.

같은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은 이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것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에 있어 이론이란 말을 사용하기에 어색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는 이론이란 적합치 못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도 이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계시의 요약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같은 의미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론으로 부른다면 이론이란 용어는 다른 신학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사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요소를 요약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 이 때에도 삼위일체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이론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 사실에 대한 조직적 해명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실천신학도 이론신학이다. 이를테면 설교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때 두가지 방법으로 이론을 만들 수 있다. 하나는 많은 설교들을 비교 분석하며 연구한 후에 설교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론의 방법(descriptive method)이다. 또 하나는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을 제시하는 이론의 방법이다. (prescriptive method) 전자가 설교에 대한 이론이라면 후자는 실재를 위한 이론이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론과 실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 의미로 이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조직신학 뿐만 아니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도 모두 이론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비슷한 의미로 이론이란 말을 연구의 방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직신학이 이론적이란 것은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의 방법론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모든 요소들을 요약하

10. W. Young, *Foundations of Theology* (Nutley, N. J. : The Craig Press, 1967) 1b.

고 조직적으로 제시하니까 조직신학을 이론적인것이라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로 이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도 이론적이라고 불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신학은 이론적이라고 말해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실 실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신학 공부의 결과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실의 이유는 딤후 3 : 16~17에 잘 나타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마도 부분적으로 신약을 가리킬 수도 있다.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러므로<sup>11)</sup>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도 없는 것을 계시하지는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실제생활에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 구절에 관한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있어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또는 우리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우리에게 신화적 허구와 어리석은 이야기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의도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올바른 사용은 항상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라야만 한다.”<sup>12)</sup>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조직신학은 실제생

11.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Kai*의 의미는 ‘그러므로’이다(참고)

F. Blass, A.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4th ed.;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75) § 442, 2, 367.

활에 유익되는 것만을 공부하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룬다. 우리는 조직신학의 모든 주제를 공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실제적 유익이 있느냐를 물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

신학은 이사실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마스트리히트(P. Van Mastricht)라는 신학자는 「이론적 - 실천적 신학」이란 제목으로 조직신학 책을 썼다.<sup>12)</sup> 그는 주제별로 세 부분 즉, '교의적 부분' (pars dogmatica), '반증적 부분' (pars elenctica), '실천적 부분' (pars practica)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는 신학의 모든 주제들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항상 이같은 고정적 방식으로 분류하여 책을 쓰자면 독자들에게는 매우 지루한 감을 주겠지만, 그 방법의 출발점 곧, 조직신학에 속하는 모든 주제가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은 좋은 출발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점을 설명해 보자. 조직신학의 신론에 속하는 '하나님의 전능'의 실제적 적용은 우리의 기도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적 차원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소용없게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조국의 자유와 안전에 대해서, 또한 여러 나라에서 핍박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며,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 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가능성과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과 직결되어 있다.

선택론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에 달려 있

12. J.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 T. A. Small; Calvin's Commentaries; eds. D. W. Torrance, Th. F. Torran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repr. 1973) 330.

13. P. van Mastricht,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Amstelodami 1677)

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있어서는, 만약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탄생했다면 예수님에게 신성은 없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룩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큰 표시라고 말할 수 없게되며 아울러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실은 부정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하겠는가 인간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며 죄의 형벌로 죽음까지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 IV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직신학이 주제별로 다루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그 중요성이 쉽게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실제적 유익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계시하셨으므로 조직신학 과목이 실제적 유용성을 가지는 신학의 한 분야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조직신학은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가 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조직신학이 이론적임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실제적이다. 조직신학 과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실천적 지식을 이론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부교수. 신학박사>